

## 일본정부의 독도 강탈음모 규탄 결의문(안)

의안 번호	967
----------	-----

제출년월일 : 2008. 7. 21

제 출 자 : 정상교 의원 외 명

### 1.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한 것은 추악한 그들의 과거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또다시 제국주의로 돌아가고자 함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짓밟고자 하는 섬나라 왜국의 침략근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충주시의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본정부의 주권침해 및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를 수호함은 물론, 일본을 적대국으로 간주, 철저히 응징해 나가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결의하고자 한다.

### 2. 주요내용

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써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나. 일본정부는 왜곡된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인정하여야 함.

다. 일본정부는 독도침략 야욕을 포기하고 주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함.

라.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해 우리정부의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촉구함

마. 충주시는 일본과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즉각 중지하고 향후 어떠한 교류협력도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

바. 충주시의회와 21만 시민은 독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임.

덧붙임 결의문 1부.